

인력공단의 총체적 '관리 부실' 도마 올라

지난달 국가자격시험 채점 전 답안지 609장 파쇄 세무사 시험 공정성 논란...사상 초유의 '재채점' 재발 방지 '공염불'...부실 관리 피해는 수험생에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에 이어 채점 전 '답안지 파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단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24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

서울지역 시험장 중 한 곳인 이곳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다음날 서부지사는 관할 16개 시험장의 총 18개 포대를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 1개는 담당자 착오로 누락됐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20일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국가자격시험이 480개나 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채점하는데, (해당 시험의) 채점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채점센터에서 응시자 수와 답안지 수가 맞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답안지 누락 인지 후 즉시 확인에 나섰을 때에는 이미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된 뒤였다. 담당자가 해당 답안지를 남은 시험지로 착각해 창고로 옮겼는데, 이후 다른 시험지 등과 함께 파쇄된 것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리를 소홀히 해 응시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단은 응시자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하는 한편, 불이익이 없도록 재시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어 이사장은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

분을 확인하겠다.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이 같은 '황당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공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출제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에선 이른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험 과정을 보면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2차 시험 합격자 중 세무공무원이 151명으로 전년(17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에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은 공단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에게 유리하도록 난이도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고용부는 출제 및 채점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단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나 채점 조작 등 제기된 의혹과 위법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다만 같은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또 다른 문항에 대한 채점 부실이 드러나면서 연이은 재채점 조치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공단은 당시에 채점 부실을 거듭 약속했지만, 고용부 감사 발표 2주도 안 된 지난해 4월16일에는 소방기술사 필기시험에서 2교시 시험지가 1교시에 배부되는 등의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공단이 시험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단이 전날 답안지 파쇄 실수를 발표하기 전까지 해당 609명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뒤 수험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재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공부하라는 거냐" "그동안 공부한 시간과 노력은 어떻게 보상해 줄거냐" "똑같은 문제 내라" "손해배상 소송하지" 등의 글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어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손해가 100% 복구는 안 되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재시험에 많이 응시해주시면 좋겠고, 교통비 등 추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여수경찰, 부처님 오신 날 맞아 특별방범 강화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19~29일 사찰-암자를 중심으로 시주함 털이, 사찰-신자 대상 범죄와 봉축담 등 시설물 훼손 행위 예방을 위한 사찰 주변 특별 범죠평범 활동을 실시한다.

여수=김현근기자



무안소방, 위급상황시 W3W 기능 집중홍보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불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으로 한글 3단어로 위치를 알려주는 'W3W' 기능을 홍보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양소방, 한국119청소년단 대상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한국119청소년단을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119체험장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장흥소방, 봄철 시민소방학교 운영

장흥소방서(서장 신항식)는 봄철 특수시책으로 지난 3월부터 4기에서 6기까지 총 94명 대상으로 시민소방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화순소방, 화재취약지역 대상 화재 안전 컨설팅 추진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봄철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컨설팅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완도해경, 수상레저 무상점검 '안전 레저문화 조성'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20일 완도 신항만에서 기관고장 및 표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판 재개

공판준비기일 13개월만에 해남지원서 열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 씨의 재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김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제1형사부(지원장 김재근)심리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13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재판을 앞두고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증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씨와 박준영 변호사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받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재심은 오는 6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 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 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봤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 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호

소했다.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으며,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이후 김 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재심 개시를 확정받은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김 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 시작됐으나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증인 신문했다.

한편 최성동 김신혜재심지원시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한 대표는 이날 해남지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친이 어떤 사유로 숨졌는지 그날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재심이 열린 만큼 김 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시작됐으니 김 씨가 무죄를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 진정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녹지원 배경으로 활짝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녹지원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녹지원에서 전통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입고 녹지원 한바퀴' 행사를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

집유기간 또 음주운전 뺑소니친 6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뺑소니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요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6시 23분께 전남 담양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5km가량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을 하다 B(6·여)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담당=박종영기자